

무등산 불... 진화장비는 갈퀴·등짐펌프

소방차 진입 못해 공무원 등 104명 주먹구구 진화

담배꽂초 불씨...하마터면 국립공원 번질 뻔

“하마터면.”

지난 주말 무등산국립공원 경계와 불과 600여m 떨어진 산 능선 봉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초기에 발견되고, 발화지점이 봉우리 부근이어서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조기에 진압됐지만 헬기를 제외한 대형소방차 등 차량 접근이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등짐펌프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한계를 드러내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새벽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경계 인근에서 발생한 잔 불을 제거하지 못해 국립공원 등 4ha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3일 광주시 동구·북구와 동부·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58분

께 동구 산수동과 북구 두암동 사이에 있는 제2순환도로 인근 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동부·북부소방서와 무등산국립공원, 동구청과 북구청 공무원 등 모두 104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발생 40여분 만인 이날 낮 12시35분께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떨어뜨린 담배꽂초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 차량 진입이 어려운 탓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대원은 “도로와 100여m 떨어진 탓에 차량은 물론 소방호스 사용도 어렵다고 판단돼 즉각 소방헬기를 요청했다”며 “불이 봉우리에서 발

2일 무등산 인근 화재 지점



생해 아래로 번지는 상황이어서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불에 비해 번지는 속도가 늦어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장비는 광주소방본부 헬기 1대와 등짐펌프 40개, 갈퀴 40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 소방차량 1대가 전부였다.

소방대원과 자치구 공무원 일부는 산불 진압을 위해 어깨에는 10ℓ 용량의 등짐펌프를 메고 해발 150m 높이의 야산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야 했고, 일부는 갈퀴

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등짐펌프와 갈퀴는 불길 확산 속도를 늦출 뿐 안전 진화에는 역부족이다.

무등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1t 소방차량 1대와 펌프 장치를 갖춘 1t 트럭 2대다. 또 보유중인 소방차량도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경우 수압 등이 약해져 사실상 화재 진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이 나면 현장 지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경우 경험도 많지 않고,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청명(4일)과 한식(5일)을 맞아 오는 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다.

/김정영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5 달뜨기 03:56
해질 18:56 달지기 15:19

산발적 빗방울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맑	11/17	보성	비온뒤 맑	11/15
목포	차차맑아짐	11/15	순천	비온뒤 맑	12/16
여수	비온뒤 맑	11/15	영광	차차맑아짐	11/16
나주	비온뒤 맑	11/17	진도	차차맑아짐	11/15
완도	비온뒤 맑	21/16	전주	비온뒤 맑	11/17
구례	비온뒤 맑	11/16	군산	차차맑아짐	10/17
강진	비온뒤 맑	12/16	남원	비온뒤 맑	11/16
해남	차차맑아짐	11/16	홍산도	차차맑아짐	8/13
장성	차차맑아짐	11/16			



바다 날씨

서해	남해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부	남부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남해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남해 서부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남해 서부	북~북동	1.5~2.5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남해 서부	북~북동	1.5~2.0	북서~북	1.5~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8/20	9/19	11/17	8/21	9/21	9/21	10/21

‘다둥이 엄마’된 지리산 반달곰

곰 2마리가 세상둥이 등 5마리 출산...총 44마리 서식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세상둥이를 포함해 총 5마리를 출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세상둥이를 출산한 어미곰은 지리산 바위굴에서, 나머지 2마리를 낳은 어미곰은 나뭇잎을 모아 둥지 형태로 만든 보금자리에서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실과 이들 5마리 새끼들의 모습을 무인카메라 등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면기간 세상둥이를 낳은 어미곰은 러시아에서 들어온 곰으로 이번 출산

이 2번째다. 이로써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지리산에는 총 44마리의 반달곰이 살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야생에서 반달곰이 세상둥이를 낳은 것은 지난 2004년 반달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며 “지리산에 풀어 놓은 반달곰이 2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고 재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은 곰들이 지리산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품에 안긴 새끼 반달곰.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체벌 이유 해임은 위법”...시교육청 과도한 징계 ‘도마위’

광주지법 ‘교육 목적’ 판단

과도한 체벌을 이유로 해임된 광주 공립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 시교육청의 과도한 징계가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 D중학교 수석교사 박모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의 하나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교사가 학생들에게 체벌한 ‘있었다 일어나기’는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나 강도가 심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학생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4년 7월25일 과도한 체벌과 학교장 지시 불이행, 다수의 민원 야기,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박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교육청은 성실·품위유지·복종·진절공정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박 교사를 2차 직위해제 한 뒤 같은 해 12월17일 해임처분 했다.

이와 관련 박 교사는 “해당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

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보복조치한 것”이라며 광주지법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이 해임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체벌이 과도하지 않는데다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의 과도한 징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체벌 금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체벌이 금지돼 있다”면서 “여론몰이 탓에 교육적 차원의 가벼운 체벌마저도 불가능하게 됐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반환 소송 승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됐다. 법원이 전남도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장 교육감이 전남도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5년 7월 선관위가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반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보전비용은 1억8073만원이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반환의 근거로 든 선거비용 허위 청구 부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장 교육감이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당선된 뒤 선거보전비용으로 13억여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장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허위 편취 금액에 해당하는 1억8073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대항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업체의 사기 혐의가 무죄를 받은 점을 근거로 선관위의 반환 통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교육감의 선거홍보대행업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운영했던 씨앤피전략그룹으로 2012년 10월 허위서류를 제출해 선거보전금 1억8073만원을 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시의회 의장 80만원 선고...직위 유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명절에 동료 의원과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의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장은 지난해 설 명절에 동료 의원 13명과 주민 65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라봉 과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원로 1989-24 (영남동 2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원로 1989-24 (영남동 25-4)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롭다운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클을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암의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화한 입차단,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엘리베이터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월라 15명 동나무권을 1박 + 45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연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원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원비, 조·중·석식가능

BYUNG.U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8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